

## 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

### EU 집행위, '20년 새로운 에너지 전략 발표

●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 "Energy 2020"을 11월 10일에 발표하였음. "Energy 2020"은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 전략에 있어 우선사항들을 정하였음.

- 에너지절약 : 특히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함.
- 건물 부문에서는 Revolving Funds와 같은 혁신적 금융상품 및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물성능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계획임. 그리고 빌딩 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분할 문제를 다룰 예정임.
-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1/5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할 예정임.
-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인증서가 에너지절약기술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인센티브가 될 가능성이 큼.
- 새로운 에너지 효율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'11년 봄에 발표될 예정임.
- 통합적 에너지인프라를 갖춘 범유럽 에너지시장 구축 : 에너지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'20~'50년 EU 국가간 전력 및 가스 공급망 구축에 관한 청사진을 '11년 중기에 발표될 예정임. 동 계획은 "EU 2050 Roadmap"을 토대로 구상될 계획임.
-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EU 회원국들의 합일된 목소리 내기 : EU 집행위원회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해 Energy Community Treaty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.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조함.
-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: 지능망 및 전력저장과 관련한 신기술, 제2세대 바이오연료 연구, 도시지역의 에너지절약 장려를 위한 "Smart Cities"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럽의 경쟁력을

제고할 계획임.

- 투명한 요금부과 원칙을 제안함.

● EU 집행위원회는 상기 발표된 우선사항들을 토대로 향후 18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및 제안서를 입법 건의할 예정임. 또한 상기 사항은 '11년 2월 4일에 열리는 제1차 EU Summit on Energy의 아젠다로 설정될 예정임.

(Europa Press Room, 2010.11.9)

### 일본, 에너지절약 시설에 최대 96조엔 필요

● 일본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소위원회는 11월 18일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'20년에 25%를 감축시키려면,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절약 설비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총 약 58조~96조엔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추산을 공표함.

- 추산은 동 성이 책정하는 온난화대책의 실천계획에 포함될 예정임. 추산은 ①일본내 온난화대책만으로 25% 감축, ②20%는 일본내 감축, 5%는 해외에서 배출권 구입으로 감축, ③15%는 일본내 감축, 10%는 해외배출권 구입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실시된 결과임.
-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사업의 적극 추진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어떤 경우에도 약 3조엔이 필요하며,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및 태양열 온수기, 단열주택 등의 도입이 필요한 가정 부문은 약 21조엔(③의 경우)~약 41조엔(①의 경우)이 필요함.
- 최대 96조엔은 ①의 경우에서 가정, 산업, 수송, 사무실 등 모든 부문을 합친 10년간의 부담액임.

(讀賣新聞, 2010.11.18)

### 칠레, 라틴아메리카에서 주택 에너지효율인증시스템 최초 적용

- 지난 11월 19~20일,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칠레 첫 “에너지 효율 엑스포(Expo Eficiencia Energetica)”에서 칠레 에너지부는 주택 에너지효율인증시스템을 ‘11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.

- 주택 에너지효율인증시스템 이니셔티브는 ‘05년 시작된 칠레 국가에너지효율프로그램(Programa Pais de Eficiencia Energetica, PPEE)의 일환으로 Ricardo Raineri 에너지부 장관과 Andres Iacobelli 주택·도시개발부 차관에 의해 발족되었음.

- 동 시스템은 주거용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와 비슷한 A~G(A가 최고 효율 등급) 등급이 매겨질 예정임. 칠레는 이미 전구,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시행하고 있음.

-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난방, 조명, 온수설비의 효율성 제고, 에너지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함.

- 동 시스템 적용은 건물주와 개발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지만 에너지효율성 및 생계비 절감을 생각하는 주택 임대자와 구매자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사업자들은 에너지효율인증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.

-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효율 기준을 적용한 신주택 건설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.

-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인증시스템은 칠레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적용하는 것임. 브라질은 상업용 및 공공건물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인증시스템을 ‘09년 7월부터 시행하였음.

(Gobierno de Chile-Ministerio de Energia, 2010.10.25)

**러시아,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에 \$300십억 투자**

- 지난 10월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대규모 계획안을 발표하였음.

- 구 소련시절에 건설된 건물과 공장들은 당시 정부의 요구에 맞춰 가장 저렴하게 지어졌으므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.

- 최근 Moscow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강화는 메드베데브 대통령의 국가 현대화 정책에서 우선과제 중 하나이며, 이를 통해 ‘20년까지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40%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.

- 러시아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세계 평균의 2.5배에 달하는 에너지 저효율 국가임.
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\$300십억을 투자할 계획임.

- 러시아 지방정부들 또한 최근 발생한 흑서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행보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음.

- 이 같은 노력으로 러시아는 연간 \$35십억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또한 러시아는 향후 10년간 13백만 대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할 예정임.

- 러시아 정부는 자원 재활용 사업도 추진 중임.

-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지난 8월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음. 동 초안은 공장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함.

- 펄프 및 제지 공장들은 공장폐기물을 바이오연료 공장에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익과 재활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연자원환경부가 언급함.

(Reuters, 2010.11.29)